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12호 【루계 제2742호】

주체112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음력 2월 2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력대응태세에 대한 시위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역도들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지역에 가장 불안정한 안전환경이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형세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발사훈련을 단행하도록 하였다.

전략무기발사훈련은 우리의 엄중한 경고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군사적위협에 계속 매달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는 적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온 무력충돌우려를 인식시키며 언제든 압도적인 공세조치로 대응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실천적인 행동의지를 더욱 선명히 보여준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들과 미싸일총국의 지휘관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발사훈련을 참관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훈련은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의 기동적이며 경상적인 가동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를 4,151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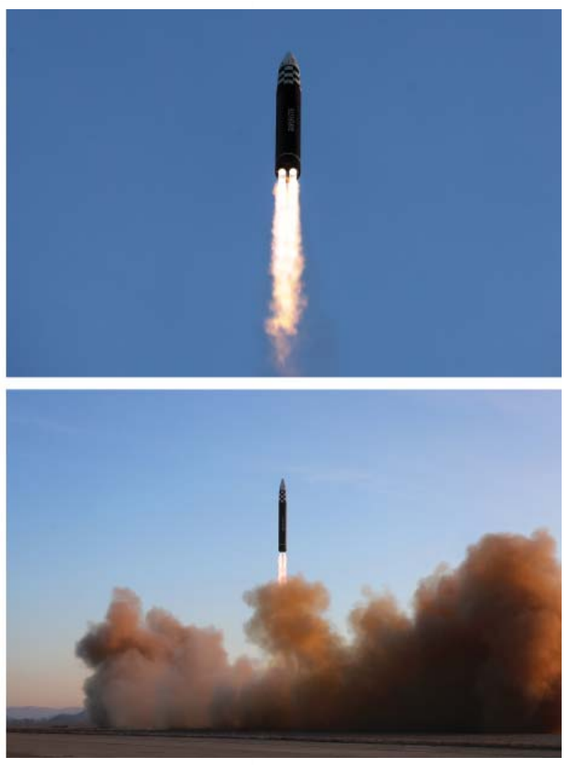
발사훈련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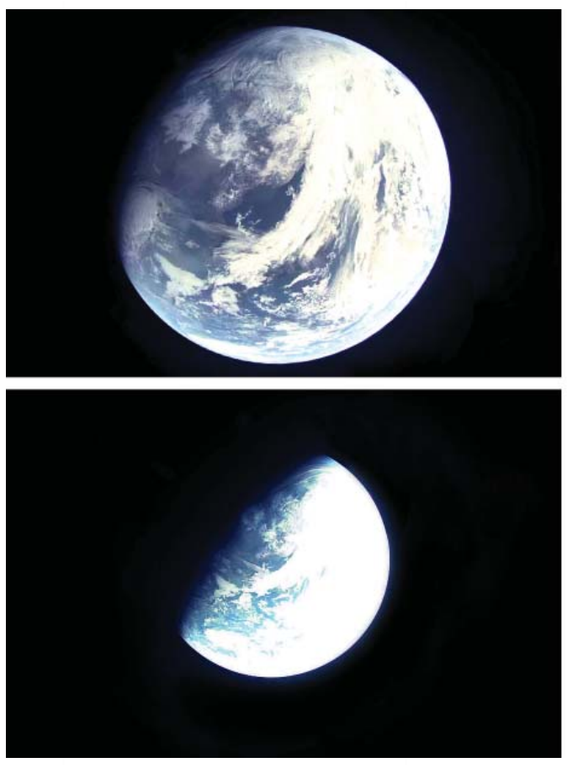
발사훈련을 통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부대의 림전태세와 공화국전략무력의 비상한 전투성이 확인되고 신뢰성이 엄격히 검증되였다.

(2면으로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력대응태세에 대한 시위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발사훈련을 참관하신 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더더욱 고도화되고있는 우리 핵전략무력의 가동체계들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다시한번 뚜렷이 립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망적인 국가의 안전환경과 적들의 위협에 대처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활동방향과 로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누구도 되돌릴수 없는 핵전쟁억제력 강화로써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제 전쟁을 억제하며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적대시하며 조선반도지역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것이라고 하시면서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것이라고 대적대응방침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엄숙한 천명을 다시금 상기하시면서 그 어떤 무력충돌과 전쟁에도 림할수 있도록 전략무력의 신속대응태세를 엄격히 유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공화국핵전략무력은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 준비에 완벽을 기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 진행

온 나라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가 제시한 결정관철에 총매진하고있는 시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지휘관들이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주요전역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여 전국적범위에서 강위력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요정치군사활동방향들과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위업실현에서 선결적이며 전략적인 최중대사로 내세운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현재의 농촌건설진행실태를 다시금 확인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제시된데 맞게 이를 무조건적으로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를 토의사업의 핵심사항으로 제기하였다.

확대회의는 조선로동당이 전망적으로 설계하고 목적지향적인 투쟁으로 인도하고있는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사회주의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민군대의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임무를 확정하였으며 그 집행과 관련한 조직기구적대책과 병력리용방안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있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조치들이 토의결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확대회의에서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놓인 주객관적형세를 개괄분석하시면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거창한 위업을 추진해나가는 오늘의 창조대전은 당의 웅대한 실천강령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역할을 해온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전진적이고 더욱 격동적인 투쟁으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그려보는 리상을 눈앞의 현실로 안겨주기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경제발전의 성스러운 전구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마땅히 투쟁의 주체가 되고 본보기가 되여 제시된 단계별목표들을 무조건 결사관철함으로써 한해 또 한해 온 나라가 반기는 부흥의 실체를 반드시 안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더욱 명백히 하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천의 보폭을 크게 내짚은 의의깊은 조치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자위의 힘으로 승리떨치는 불패의 강국

오늘은 공화국이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단번성공을 안아온 력사적인 날이다.

이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은 6년전 백두의 담력과 비범한 과학적예지, 불멸의 애국헌신으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3.18혁명》의 위대한 대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에 대해 감회깊이 되새겨보고있다.

《3.18혁명》!

외워볼수록, 음미해볼수록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지금도 못잊을 그날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그처럼 기뻐하시며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쳐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벌려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얼싸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전사들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우렷이 어려온다.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로케트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뽑고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케트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신것은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케트공업의 새로운 탄생,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킬수 있는 밝은 앞길이 열리였기때문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가 개발완성된 3월 18일을 로케트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그토록 기쁨에 넘치시여 말씀하신것이다.

그날로부터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은 비약적으로 상승강화되여 오늘은 반만년민족사에 있어본적 없는 사상초유의 초강력무기들을 보유한 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무진막강한 자위의 힘을 가진 나라로서 국위와 국광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아도 공화국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고 중중첩첩 가로막아나서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치며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의 힘으로 자기 령토와 자기 인민의 존엄을 당당히 지켜가는 나라는 없다.

자기의 손으로 마련한 강력한 군사적힘이 없으면 나라도 민족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한 삶도 지킬수 없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주체적인 병기공업창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관단총도 만들고 박격포도 생산해내였으며 이 자위의 무장장비들을 가지고 미국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위대한 전승의 신화도 안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이 로골화되고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평화적공존》을 떠들고있던 때에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자위적군력을 더욱 억척으로 다져주시였다.

그 어떤 환경과 역경속에서도 언제나 자위의 로선을 굳건히 견지하시며 불패의 힘을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 대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아버님으로부터 두자루의 권총을 물려받으시고 《ㅌ.ㄷ》의 기치를 높이 드신 때로부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신 전 과정에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사상을 일관하게 견지하시고 언제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견지하여오신 자위의 로선은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굳세게 이어지였다.

지금도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어려운 나날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멀고 험한 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며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왔는가를 후대들도 알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인민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힘이 강해야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고 인민들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미래도 담보할수 있다는 철리를 신념으로 심장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피를 물고 달려들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심신을 깡그리 바치시여 국가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자위의 핵퇴성을 울리는 민족사적사변도 안아오시였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무적필승의 초대강국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불과 몇해어간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인 대업을 이룩하시였다.

이 나날에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이 련이어 일어나 온 나라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적대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주었다.

또한 공화국무력의 발전상을 긍지높이 보여주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이 펼쳐지고 극초음속미싸일개발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군력강화에서는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적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지난 2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 강군의 위용떨치며 도도히 흐르던 각 군종, 병종대오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의 장엄한 흐름은 지금도 커다란 여운과 진폭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공화국건군사에 특기할 그날들, 강대한 공화국의 존엄과 사상초유의 힘을 한가슴에 안아보던 력사의 그 순간 순간들을 그려볼수록 온 나라 인민은 우리 국가의 강대한 힘을 마련해주신 절세위인들을 우러르며 고마움과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린다.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시며 무적필승의 국력을 떠올리시기 위해 산악같은 파도가 요동치는 캄캄한 바다길을 헤쳐가시였고 허리치는 바다물속에도 남먼저 들어서시였으며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생결단의 헌신과 로고를 누구나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예나 지금이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태평양과 대륙을 련결하는 전략적위치에 있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침략자의 발굽에 무참히 짓밟혀야 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나라,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솟구쳐올라 행성을 굽어보고있는것이다.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다.

존엄과 명예도 강자에게만 있고 혁명위업의 정당성도 이겨야만 증명되며 자위가 있어야 자주도 자립도 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봐야 한다.

든든한 반석우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터 되여야 무궁번영의 부국도 될수 있다.

이것이 공화국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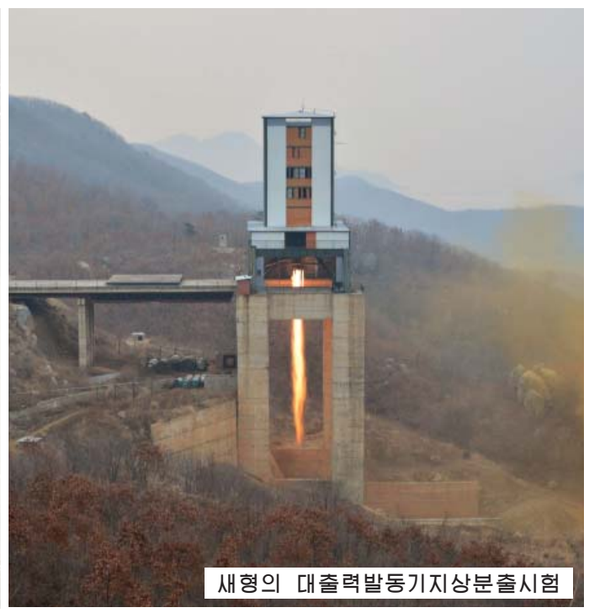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내외의 규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등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세인이 우러르는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공화국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자위의 힘, 무적의 초강력으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발전권을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그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유 금 주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전략순항미싸일 수중발사훈련 진행

전략순항미싸일 수중발사훈련이 3월 12일 새벽에 진행되였다.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동해 경포만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싸일을 발사하였다.

발사훈련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구성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대지상공격작전태세를 검열판정하였다.

발사훈련은 자기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였다.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싸일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비행궤도를 7,563s~7,575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발사훈련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수중발사훈련을 통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정세를 시종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관리해나갈 우리 군대의 불변한 립장이 명백히 표명되였으며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억제 수단들의 경상적가동태세가 립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군부대에서 미싸일발사훈련 진행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조선인민군 미싸일부대에서 3월 14일 구분대교육을 위한 미싸일시범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시범사격훈련을 군부대관하 각 구분대의 해당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참관하였다.

훈련에는 군부대관하 제11화력습격중대가 참가하였으며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싸일 2발을 중등사거리체제로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

황해남도 장연군일대에서 발사된 미싸일은 611.4km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

군부대장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킬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훈련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화력습격중대들에 대한 훈련강도와 요구성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화력습격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철저히 갖추어나갈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는 길에서 ◎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포성

주체103(2014)년 전승절을 맞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싸일발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뜻깊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의 발사훈련에서도 화력타격부대의 전투력과 전술미싸일의 전투적성능이 완벽한것으로 평가되였다.

발사 전 과정을 지도하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타격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였다고, 전승절을 맞으며 터친 이번 화력타격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과도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성공의 기쁨도 함께 나누시며

주체105(2016)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바다가의 발사장으로 나오시였다.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시고 백두대지의 영웅청년들을 만나보고 돌아오시는 길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바람세찬 바다가발사장에 달려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귀항하는 전략잠수함을 항구에서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력사적인 성공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기쁨도 시련도 이겨내며 헤쳐온 탄도탄개발의 고심참담했던 나날들이 눈에 밟혀와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이들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을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높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시대의 부름—백두산영웅청년정신

수도건설의 새 전구에 용약 떨쳐나선 열혈의 젊은 가슴들을 용암처럼 끓게 하는 시대의 부름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격동적인 연설에서 온 나라의 돌격전구마다에 료원의 불길마냥 파급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우리 시대 청년건설자들이 지닌 불굴의 특질과 투쟁기개의 상징으로, 고난을 박차고 무쌍하게 일떠서는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

혁명의 성산에 삶의 좌표를 세우고 청춘의 용솟는 힘과 기개로 백두대지에 신념의 언제, 대기념비적수력구조물을 일떠세운 백두청춘들의 불굴의 군상이 이 숭고한 부름에 뜨겁게 어려있다.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함께 모진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 하지만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신념의 구호를 우렁차게 웨치며 살을 에이는 추위속에서도 함마와 정대로 천연암반을 까내고 산을 들어내면서 언제를 쌓고 물길굴을 한치한치 열어나간 청년돌격대원들이다.

발파구멍을 뚫는 시간이 늦어질가봐 선자리에서 《얼음밥》을 먹고 겨울의 혹한속에서 혼합물이 얼어드는것이 안타까워 물을 끓여가면서까지 콩크리트타입을 순간도 멈추지 않던 불사신들, 강추위에 륜전기재마저 얼어붙으면 썰매전, 발구전으로 수송로를 열어나갔고 서두수의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온몸이 《얼음기둥》이 되여 레루를 떠받든 청년돌격대원들, 자체로 공사에 필요한 수력구조물용세멘트와 강재, 《선군청년전위》호기관차와 혼합물운반선 《백두청춘》호도 만들어낸 청년돌격대원들…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으며 겨울철에는 수력발전소건설을 할수 없다던 기존건설공법을 타파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자강의 힘으로 뚫고나간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은 과연 무엇으로 고동치고 있었는가.

령도자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 바로 이것이 청년건설자들을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창조에로 떠민 불굴의 신념이였고 기적창조의 원동력이였다.

하기에 주체105(2016)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충실성과 열정이 그대로 어려있는 거창한 언제를 바라보시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강계정신이 창조되였다면 오늘의 어려운 시기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창조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은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들어올릴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지니고 엄혹한 자연과의 격전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새세대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백두청춘들이 발휘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당중앙결사옹위정신,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정신이며 오늘의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공격적인 혁명정신이라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였다.

백두대지에서 발휘한 조선청년특유의 불굴의 기상을 더욱 승화시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행정에서 청년들이 애국열의를 다시금 높이 발휘할수 있는 새 활무대, 거창한 청년판을 펼쳐놓자는것이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 아니 온 나라 청년들이 사회주의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총폭발시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청춘들의 리상과 포부, 담력과 배짱, 용감성과 위훈으로 머지않아 수도의 북쪽관문에 펼쳐지게 될 웅장화려한 새 거리를 눈앞에 그려보는 인민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다.

김 학 철

태양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통일애국투사

그날은 주체82(1993)년 3월 19일이였다.

조국에 돌아오는 민족의 장한 아들을 얼싸안아 맞이하는 환희와 격정의 꽃물결이 판문점에서부터 수도 평양에 이르기까지 긴 연도들에 굽이쳤다.

수많은 남녀로소들이 떨쳐나와 손에손에 꽃다발을 들고 환호를 터치였다. 그 꽃물결을 보며 연신 감격에 눈시울을 적시던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그가 바로 온 나라가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높이 내세우고 자랑하는 리인모선생이다.

그 못잊을 날로부터 어언 30년이 흘렀다.

그는 오늘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신미리애국렬사릉의 높은 언덕에서, 그의 반신상이 높이 솟아 빛나는 통일거리에서 그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후대들의 가슴마다에 인생의 값높은 진리를 새기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애국렬사 리인모선생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어둠이 질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너비는 겨우 다섯뽐반, 길이는 열세뽐, 빛 한점 들지 않는다는 0.75평의 독감방.

야수의 무리들은 지옥같은 감방에 리인모선생을 처박았다.

그것도 모자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갖은 악형을 가하며 육체를 만신창으로 만들었다.

감옥에서의 1만 2 490여일은 단순히 한 인간이 맞고보낸 세월이 아니라 인간과 야수의 대결로 이어진 날과 달이였다.

후날 리인모선생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겨울에는 소한, 대한이 다 지나도록 떡봉이들에 의한 무자비한 구타가 계속되였다. 그들은 감방문을 따고 우리를 끌어낸 뒤 옷을 홀랑 벗게 했다. 그리고는 우리들의 알몸에다 얼음같은 랭수를 퍼부었다. 그후 추위로 와들와들 떠는 우리를 알몸인채로 꽁꽁 묶은 다음 공중에 매달아놓고는 몽둥이로 두들겨패는것이다.》

교형리들이 강요한것은 단 하나 《전향》이였다.

이 두 글자를 쓰는데는 불과 몇초면 충분하다. 그러면 혹독한 고문과 감옥살이에서 벗어나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리인모선생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왜서였던가. 조국의 믿음,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 애국의 신념을 저버릴수 없었기 때문이였다.

리인모선생이 모진 옥중고초를 이겨내며 지켜낸 신념, 그것은 홀어머니품에서 태여난 유복자이고 풍산의 막돌같은 망국노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안겨주고 새 생활의 창조자,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내세워준 위대한 태양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억척불변의 마음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조국은 파발리의 총성으로 눈을 뜬 식민지소년의 가슴속에 생의 빛으로 흘러든 백두산장군전설이였고 반일애국투쟁에 떨쳐나서게 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였으며 해방된 강산에 울리던 《밭갈이노래》였다. 참다운 삶을 안겨준 위대한 태양의 품, 생명보다 귀중한 조국을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지키고 받들려는 억척의 마음, 조선로동당의 한 전사라는 자각이였다.

그 신념을 간직하고있었기에 리인모선생은 《죽어 상여에 누워서나 나갈수 있다.》는 형무소와 교도소, 보안감호소들에서 가해진 모진 고문과 기아, 추위와 고독을 이겨낼수 있었다.

빛 한점 없는 감방안에서 리인모선생은 겨우 차례지는 한모금 물마저 부어가며 진달래를 곱게곱게 피웠다고 한다.

그 진달래는 리인모선생의 심장속에 간직된 고향이고 그리운 혈육들의 모습이였으며 죽어도 버릴수 없는 조국의 밝은 웃음이였다.

그 진달래를 피운 열과 빛은 리인모선생의 가슴속에 차넘친 조국애였고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이였으리라.

신념은 지키는것이고 벼리는것이며 생명과도 맞바꾸는 절대의 진리이다.

…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기쁨이여 영광이여
네 뼈마디에 마지막기름이
마르고
네 가죽이 백골보다 앙상한
뼈를 감쌀 때까지
네 심장이 마지막맥박을
칠 때까지
조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하라
…

15척 담장아래 죽음의 철창속에서 리인모선생이 쓴 이 시는 위대한 태양이 심어주고 벼리여준 신념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여야 하는가를 민족과 력사앞에 터친 그의 심장의 분출이라고 할수 있다.

리인모선생은 그렇게 신념을 지켰다.

그렇게 심장속에 간직된 조국을 지키였으며 위대한 태양의 사랑과 믿음을 간직했다.

어둠속에서 별들이 그리도 아름다운것은 태양의 빛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태양의 따사로운 빛을 받아

기적이란 무엇일가.

아마 고목에 꽃이 핀것과 같은 리인모선생의 인생전환을 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을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인 70고령에 리인모선생은 새 생명의 증서를 받아안았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여 20여일이 되던 주체82(1993)년 4월 15일, 바로 그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리인모선생을 찾으시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자신의 탄생일에 병상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리인모선생은 수십년간 응축되여있던 그리움과 고마움의 격정을 진하디진한 눈물로 터뜨리였다.

리인모동무는 해방직후 우리 당에 입당한 로당원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수표하신 당원증을 수여해주실 때 통일애국투사는 마음속으로 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 전사 리인모는 수령님품에서 다시 태여났습니다.)

교형리들의 악착한 고문으로 쓰러졌다가도 정신을 차리면 제일먼저 입속으로 외워보던 말—《입당년월일 1945년 10월 8일》

죽더라도 잊지 말자던 입당날자와 당원증번호가 그대로 찍혀진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때 리인모선생의 심경을 무슨 말로 다 형언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원증을 수여해주신 그날은 리인모선생이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다시 태여난 뜻깊은 《생일》이였고 사연깊은 당원증은 그대로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증서이기도 하였다.

30여년세월 차거운 쇠고랑이 옥죄였던 리인모선생의 손목에 채워주신 사랑의 금시계에도 그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이 담겨져있었다.

절세위인들과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게 된 그날 마비되여 가슴언저리에도 못올라가던 리인모선생의 한팔이 뒤머리까지 재빨리 올라가며 머리칼을 쓰다듬었다고 한다.

위대한 태양의 뜨거운 열과 정이 아니였더라면 도저히 쳐들수 없는 《극한계선》이라고 하던 가슴언저리우를 두번씩이나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것이며 한주일을 넘기지 못한다던 그의 생이 14년간이나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꿈만같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던 그날 리인모선생은 다는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품으로 자기를 데려오시기 위해, 삶의 활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를.

리인모선생이 조국의 품에 안긴지 1년이 되던 주체83(1994)년 어느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당이 1년전에 왜 리인모를 데려오자고 하였는가.

리인모로 말하면 34년동안이나 옥중에서 조국을 위해 싸운 전사이다. 아무리 정세가 긴장하고 준전시상태라고 하여도 리인모를 데려와야 우리가 혁명동지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우리를 믿고 30~40년을 싸워온 동지인데 우리가 그를 구원하여주지 않으면 누가 구원하여주겠는가. …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에는 옥중투쟁을 한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30~40년을 옥중에서 지조를 지켜 투쟁하면서 인생의 전부를 보낸 그런 혁명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투쟁한 동지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당이 전사들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리인모가 살 집도 좋은 집으로 주고 료리사도 붙여 구미에 맞는 음식을 대접하자고, 리인모가 완쾌되면 로병대회 주석단의 수령님곁에 앉히고 전승기념열병식장에서도 주석단에 오르게 하자고, 백두산에도 가보고 고향에도 들려보게 하자고, 고향의 소학교를 리인모소학교로 명명하자고 세심하게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인생의 황금시절을 차디찬 감방속에서 고생한 리인모선생을 위해 보내주신 새털이 불이야기, 대양건너 지구반대켠의 나라에까지 보내시여 치료받게 해주신 은정, 《지옥》에서 보낸 수십여년세월을 락원에서의 행복의 시간으로 메꾸어주고싶으시여 일일이 마음써주신 그 은혜…

하기에 리인모선생은 위대한 수령님과 너무도 꼭같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분에 넘치게 받아안으며 이렇게 토로하였다.

—차디찬 감방에서 죽어가던 이 몸, 지팽이인생으로 시들던 이내 몸에 조국이 무엇인지, 혁명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사랑의 화신, 의리의 화신이십니다. 죽어도 꺾이지 않는 신념, 숨져도 버릴수 없는 신념, 그것은 당신이 주신것입니다. 위대한 신념과 의지의 화신은 정녕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신념을 지켜싸워 승리한 리인모선생에게 영예의 **김일성훈장**, 조국통일상, 2중공화국영웅 등 최고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고 영생의 단상에 세워주시였다.

리인모선생이 세상을 떠난지도 십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위대한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이 있어 리인모선생의 삶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다.

주체106(2017)년 8월 24일 신미리의 애국렬사릉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인모선생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그의 묘에 보내주신 화환진정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하늘도 머리숙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극한 혁명적의리의 세계가 뜨겁게 비낀 화환앞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화환댕기에 새겨진 태양의 존함과 함께 화강석비돌에 더욱 빛나는 영웅의 사진, 그밑에 정히 새겨진 영생의 글발들…

바로 그 두해전 리인모선생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한생을 변함없이 남편을 기다려온 김순임녀성의 사망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몸소 그의 묘에 화환을 보내주시고 장의를 잘해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리인모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시대에만 나올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전형이라고,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을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리인모선생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않고 변함없이 내세워주시려는 그이의 고결한 혁명적동지애의 세계와 온 나라 인민이 리인모선생과 같은 신념의 인간, 의지의 인간으로 살며 투쟁하기를 바라시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태양이 있기에 뭇별도 있는 법이다.

리인모선생이 남조선 《말》잡지의 녀기자와 나누었던 당시의 대화가 지금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메아리친다.

기자: 《선생님, 다시 태여나도 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리인모: 《설사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나 34년이 아니라 그 곱절을 〈지옥〉에 갇히운다고 해도 나는 오직 태양의 전사로 살겠습니다. 태양은 영원합니다. 그 품에 안긴 전사의 삶도 영원합니다.》

오늘도 평양의 통일거리에 세워진 리인모선생의 반신상을 찾으면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신념의 강자, 의지의 화신으로 영생하는 통일애국인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듯싶다.

위대한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죽어도 그 신념 변하지 말라고.

본사기자 박 진 홍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조선사람이 제힘으로 처음 만든 연필

주체35(1946)년 2월 3일 점심때가 거의 된무렵이였다.

당시 평양연필공장을 경영하고있던 기업가는 공장을 찾아오신 우리 민족의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그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어느덧 가까이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것이였다.

《송대관동무가 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시는지 더욱더 놀란 그는 엉겁결에 《예, 접니다.》라고 대답을 올리였다.

《아, 송대관동무입니까? 이렇게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연필만드는것을 보러 왔는데 현장으로 갑시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장안으로 들어가시였다.

말이 공장이였지 살림집에 잇닿은 자그마한 건물에 몇대의 기계대패와 송풍기 한대를 놓고 몇명의 로동자들이 흑연과 석탄가루를 날리며 일하고있는 작업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업장에서 손대패로 연필대의 각을 내고있는 로동자들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일이 힘들지 않은가, 하루에 연필을 얼마나 생산하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연필대로 쓸 피나무판자를 쌓아놓은것을 보시고 **《흥송으로 연필대를 만들어도 됩니다.》**라고 알려주시였다.

송대관은 귀가 번쩍 뜨이였다.

그때까지 그는 피나무가 아니면 연필을 만들수 없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피나무는 구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흥송으로 할수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해들일수 있지 않는가. …

그가 이런 속구구를 하고있는데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지켜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이들이 숨은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연필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새 조선건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문제입니다.

그이의 말씀에 기업가는 자기의 인생행로가 돌이켜져 그만 눈물이 불쑥 나왔다.

왜정때 그는 정미공장들에서 나오는 사료를 되넘겨 파는 장사거래도 해보고 잡화상을 벌려놓기도 하였지만 조선사람들의 기업활동은 매판자본에 흡수되거나 파산을 면할수 없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여러척의 짐배에 상품을 싣고 서울로 갔지만 미국놈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 배와 상품을 모조리 빼앗기고 빈손으로 나앉게 되였다.

저주로운 땅에 침을 뱉고 평양에 돌아온 그는 두루 자금을 변통하여 자그마한 연필공장을 차려놓았다.

왜정때에는 조선에 연필공장이 없고 일본놈들이 본국에서 만들어 파는것을 써야 했으므로 연필을 만들어 팔면 돈벌이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을 탓할 대신 그처럼 대견하게 여겨주시며 숨은 애국자라고 치하해주시니 감격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공장을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비공정을 거쳐 완성작업장에 이르시여 여러가지 색갈의 연필이 무드기 쌓여있는것을 보시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필 한 자루를 집어드시고 손수 연필을 깎아도 보시고 수첩에 써보기도 하시며 아직 부족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조선사람이 제힘으로 처음 만든 연필인데 이만하면 성공한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그리고 공장을 떠나실 때에는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속담에도 있는것처럼 첫술에 배부르겠는가, 이제 나라에서 큰 건물도 해결해주고 수송문제도 풀어주며 채벌림도 떼주겠으니 좋은 연필을 많이 만들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를 소집하시고 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상정시키시였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이역의 동포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어버이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지금으로부터 48년전인 주체64(1975)년 3월 25일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사업과 관련한 참으로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김일성**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려면 조국에서 일하는 일군들이 총련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총련일군들의 애국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물론 총련애국사업의 성과여부는 총련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그렇다고 하여 조국에서 일하는 우리 일군들이 총련사업에 무관심하여서는 안된다. 총련사업을 잘 도와주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총련사업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조국에서 일하는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의무로 되기 전에 민족적량심으로 되고 동지적의리로 되여야 한다. …

이역의 전사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들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당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대렬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총련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각계층의 광범한 동포군중을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애국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문제 등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총련조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이처럼 우리 일군들에게 총련사업을 잘 도와줄데 대하여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그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뵈옵고 고귀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총련일군들은 애국운동의 방법과 동포군중과의 사업묘리도 터득하였고 총련을 둘러싼 일본의 환경과 세계정세변화의 추이도 환히 꿰들게 되였으며 군사와 경제, 과학과 문학, 음악과 체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상식도 넓히게 되였다.

주체84(1995)년 5월 어느날 한 일군으로부터 총련결성 40돐을 맞으며 준비되고있는 사업을 보고받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절 총련결성기념일을 맞으며 동무들에게 총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총련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오시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총련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결성 40돐을 맞는 총련에 축전이 아니라 서한을 보내여 힘과 고무를 안겨주려고 결심하였다고 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여 조직해주시고 이끌어오신 총련을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실한 애국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재일조선인운동사에 쌓으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총련을 수령님의 참된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길이다. 총련을 천년이고 만년이고 변함없이 수령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이 내가 이번 서한에서 강조하자고 하는 기본종자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교시는 그대로 력사적인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의 갈피마다에 주옥같은 명제로 새겨졌다.

공화국인민들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시기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도 고난과 시련의 시기였다. 총련의 존재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내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이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총련을 허물고 재일동포들이 마음의 기둥을 잃고 영영 주저앉게 만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시련과 난관이 천겹만겹으로 겹쳐들던 그 준엄한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끊임없이 주시였다.

또한 일본반동들이 당치않은 구실로 총련시설들과 동포들에 대한 강제수색놀음을 련이어 벌리는 등 반총련소동에 미쳐날뛸 때에는 강력한 국가적조치들도 취하도록 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동지로, 한식솔로 뜨겁게 불러주시며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같은 사랑이 있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참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 고난의 언덕을 넘고헤치며 민족자주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힘과 열정, 지혜를 다 바쳐올수 있었고 그 길에서 조국과 민족이 자랑하는 혁명가로 성장하게 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정치적탄압과 차별행위, 보수언론들의 악랄한 허위모략선전은 오늘도 그칠새 없다.

동포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책동도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하지만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총련은 억세게 일떠서고있으며 더욱 강해지고있다.

사회주의조국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애국애족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신념과 의지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영원히 잊지 않고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향해 억세게 나아가는 그들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한다.

본사기자 전 영 민

봄계절의 판이한 두 현실

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온갖 꽃이 다투어 피여나는 봄, 보슬보슬 내리는 단비가 대지를 적시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이다.
어느덧 겨울은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약동하는 봄계절에 조선반도의 량쪽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판이하다.

봄빛넘치는 사랑의 대지

봄은 어디서부터 오는것인가.

무릇 두텁게 언 얼음밑으로 돌돌 흐르는 시내물소리에서, 물이 올라 한껏 부풀은 버들개지와 더불어 봄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인민의 꿈과 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이해의 봄은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흔들어깨우는 장쾌한 발파뢰성과 함께 왔다.

인민들이 안겨살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마련하기 위한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장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장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장에서 련이어 울려퍼진 발파소리들이였다. 거창한 변혁과 더 좋은 행복을 안아오는 그 발파소리를 들으며 온 나라 인민은 격정에 휩싸였다.

돌이켜보면 봄하늘가에 울려퍼진 창조와 건설의 발파폭음들과 더불어 얼마나 가슴벅찬 기적과 변혁의 실체들이 마련되였던가.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송화거리와 완공을 앞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들, 장쾌한 온실바다 펼쳐진 련포의 눈부신 전변…

막아서는 곤난이 아무리 혹독하여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거창한 건설대전을 련이어 전개하시여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무릉도원들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지금은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온실농장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봄기운이 약동하는 공화국의 농촌들도 들끓고있다.

올해 알곡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낼 일념을 안고 각지의 농촌들에서 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 모판자재확보, 자급비료생산과 실어내기, 흙깔이 등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드넓은 전야의 그 어디서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농촌건설의 휘황한 리정표따라 기세차게 진군하는 농업근로자들의 희열과 랑만에 찬 모습을 볼수 있다.

어찌 그뿐이랴.

식수절을 계기로 온 나라가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어갈 애국열의에 떠받들려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그속에서 아침저녁 즐겁게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펴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주요전역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할데 대한 대책을 취하였다.

국가방위의 주체인 인민군대를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사회주의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전역들에 파견한 바로 여기에는 그 어떤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인민들이 기대하고 그려보는 리상을 하루빨리 눈앞의 현실로 앞당겨오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과 투철한 의지가 어려있다.

절세위인의 불같은 위민헌신의 의지에 떠받들려 머지않아 이 땅우에는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줄 만복의 가을이 펼쳐지게 될것이니 세상사람들은 복받은 대지, 복받은 인민을 부러워하게 될것이다.

정녕 창조와 건설로 약동하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펴나는 환희의 봄이다.

자연의 봄은 왔어도…

공화국에서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의 가을을 약속해주며 봄계절이 한창 무르녹고있을 때 군사분계선너머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극심한 생활난에 울분을 터치고있다.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 때문이다.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이고 외세의존적이며 무지무능한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물가폭등과 수출감소, 실업률증가로 민생은 더욱 궁핍해지고 가혹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로동력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정채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을뿐 아니라 집없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되고 뻐스와 지하철도, 택시, 전기, 가스료금까지 껑충 뛰여올라 아우성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비극적현실이다.

남조선에서 극심한 경제위기와 악성전염병사태 등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자살률, 출생률, 사고발생률 등에서 세계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있다.

오죽했으면 각계층이 《경제와 민생에 엄혹한 겨울이 닥쳐오고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타도만이 살길이다.》고 웨치며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겠는가.

그야말로 남조선에도 자연의 봄은 왔지만 근로대중은 소생의 봄이 아니라 인간의 초보적인 삶마저 꽁꽁 얼구는 엄동의 혹한속에서 비참한 생을 간신히 이어가고있다.

남조선의 근로대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북침전쟁책동으로 하여 더욱 배가되고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생의 봄이지만 죽음과 파멸의 전쟁연습이 봄들판에 펼쳐지고있다. 진짜 이러다 전쟁날가 걱정이다.》

《이번 훈련은 방어적훈련이 아닌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다.》

《〈한〉반도의 봄은 언제까지나 전쟁연습의 포연으로, 비행기소리로 얼룩질것인가.》

…

이 시각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극도의 불안과 고통, 절망과 규탄의 목소리들이다.

* *

창조와 번영, 행복과 환희의 봄풍경!

불행과 절망, 공포와 불안의 살풍경!

봄계절에 조선반도에 펼쳐진 판이한 두 현실은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행복과 문명이 꽃펴나는 진정한 인민의 락원은 어디이고 사람들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들씌우는 인간생지옥은 어디인가를.

누가 평화를 사랑하고 누가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본사기자 홍 범 식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치며

김 회 일 운 동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리던 초기 이 운동은 지도일군들속에서만 주로 벌어지고 새 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편향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5(1946)년 12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모든 사람이 실지 행동으로써 민주조국건설에 몸바치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때부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새 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전군중적운동으로 심화되여 나갔다.

이러한 속에 1946년말 정주철도기관구 로동자들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파괴된 수십대의 기관차를 수리하여 수송능력을 높이는 한편 채탄돌격대를 뭇고 자체의 힘으로 석탄을 캐내여 철도운행을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1월 20일 이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주시였으며 그들의 창발적애국운동을 이 운동의 선구자의 이름을 붙여 《김회일운동》으로 부르게 하시였다.

또한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정주철도기관구의 종업원들이 추켜올린 애국의 봉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로 세차게 타번져갔다.

본사기자

수필

아이들의 꿈에 비낀 세계

한 고마운 청년을 통해 본 내 조국의 모습

투 고

나에게는 한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한 고마운 청년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있는 마음속괴로움이다.

지난 2월 길을 가던 나는 뜻밖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신을 차리고보니 병원침대였다. 긴장하게 구급치료를 벌리던 의료일군들이 이젠 됐다고,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큰일날번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후 한 청년이 의식을 잃은 나를 업고 땀을 철철 흘리며 병원에 온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 이야기를 듣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청년에 대해 모르고있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는것을 보고는 청년이 조용히 떠나갔던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고마운 청년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였다.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싶어서였다.

하지만 청년이 자기의 이름도 직장도 대주지 않고 떠나간것으로 하여 그의 행처를 찾기가 몹시 힘들었다.

내가 쓰러졌던 장소주변의 마을사람들을 만나 당시의 상황과 청년의 생김새와 나이 등을 물어보며 안타깝게 찾았으나 이렇다할 소득이 없었다.

고마운 청년을 찾아 하루, 또 하루…

종시 그를 찾지 못한 나에게는 죄스러움과 함께 야속함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사람두 참, 그런 일을 하고 이름 석자 알려주면 못쓴다던가. …)

그러던 어느날 나는 언제인가 물에 빠진 녀인을 구원해준 한 청년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한 청년이 간간이 들려오는 웨침소리에 급히 달려가보니 비가 내려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한 녀인이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었다. 청년은 서슴없이 사품치는 강물속에 뛰여들었다. 다행히 녀인을 찾았으나 세찬 물살에 떠밀리우며 물속에 가라앉기를 그 몇번… 한치 또 한치 녀인을 구원해가지고 나왔을때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 잠시후 녀인이 정신을 차리는것을 본 청년은 말없이 떠나갔다는것이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 청년이 어쩌면 나를 구원해준 청년과 신통히도 꼭같을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마냥 후더워올랐다.

그러고보면 덕과 정이 차넘치는 우리 사회에는 물에 빠진 녀성을 구원해준 청년이나 위급한 정황에서 나를 구원해준 청년과 같이 남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의 불행과 아픔으로 여기며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바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도 많은것인가.

멀리 볼것도 없다. 몇해전 우리 인민반의 한 주민이 뜻밖의 일로 중태에 빠진적이 있었다. 그때 생명이 위급한 그를 위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런 소행을 발휘하고도 그들은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최대비상방역기간에는 또 어떠했던가.

가정에서 쓰셔야 할 약마저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을 먼저 생각하며 뜨거운 진정을 바치였다.

악성전염병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약품과 식료품을 보내주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일한 공장종업원들, 가산을 아낌없이 덜어내여 마련한 물자들을 합숙과 대학기숙사,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준 사람들, 방조가 필요한 세대, 곤난한 이웃들에게 사심없이 갖가지 필수품을 보내준 주민들…

집단주의와 인간애가 공기처럼 흐르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화폭은 이뿐이 아니다.

영예군인들의 일생의 길동무가 되여 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떠밀어주는 미더운 청년들,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혈육, 친부모가 되여 따뜻이 보살펴주는 사람들, 환자를 위해 지극한 정성을 다 바쳐가는 의료일군들…

내 조국땅 그 어디서나 이렇듯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수 있고 소박하고 평범한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이런 미덕과 미풍을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 각종 사회악과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남조선과 같은 썩어빠진 세상에서 어찌 생각조차 할수 있으랴.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내가 찾는 고마운 청년의 모습에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정신세계를 지닌 우리 인민의 모습, 미덕과 미풍의 대화원인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본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대동강구역 동문1동
리 철 영

나는 철수의 모습에서, 아니 학급의 30명모두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꿈을 꽃피워 미래의 주역으로 억세게 자라날 인생의 최우등생들을 보고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이룰수 없는 꿈을 안고 인생의 락제점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한다.

우리 학급아이들의 《치렬한 꿈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활기차게 벌어질것이다.

치렬한 생존경쟁으로 꿈이 없는 그 사회가 보란듯이.

김 숙 영

이 땅에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주범은 누구인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쉴드》)를 한사코 강행하였다.

남조선의 군부호전광들은 이번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23일까지 11일동안 실지 전쟁상황을 가정하여 중단없이 진행되며 연습기간에 20여가지의 대규모야외기동훈련이 실시된다고 하면서 주요훈련들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들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이 저들이 벌려놓은 전쟁불장난소동을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라고 광고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을 감출수 없는것처럼 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전 기간 공격훈련으로 진행되며 특히 《북지역점령 및 안정화작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것이라고 이미전에 공개했듯이 《자유의 방패》는 철두철미 공격작전훈련들로 일관된 북침전쟁연습이다.

실지로 내외호전세력은 지금까지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적성격》이니 하던 상투적인 가면마저 집어던지고 《방어단계》인 1부연습이 없이 《반격 및 안정화단계》라는 2부연습만을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호전세력들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지 못해 얼마나 안달이 나 하는가를 잘 말해준다.

특히 련합해병대상륙훈련인 《쌍룡》의 규모를 확대하여 감행하려 하고있는것도 이번 연습의 침략성, 공격성을 명백히 보여주는것이다.

상륙훈련은 그자체가 공격훈련이다. 이번에 내외호전세력은 《쌍룡》훈련을 병력 및 장비의 탑재, 해상이동, 사전연습, 《결정적행동》인 해안침투, 돌격, 상륙성과확대 등의 4단계로 구성하여 보다 공세적, 공격적성격을 띠고 진행하며 전 과정을 《북지역점령 및 안정화작전》을 기본으로 한 지상공격작전과 배합하여 강행하려 하고있다.

훈련의 규모와 투입된 병력, 무장장비들을 보아도 그렇고 더우기 3월말에 련합항공모함강습단훈련과 남조선미국일본미싸일경보훈련도 계획하고있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것을 보아도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예비전쟁, 북침핵전쟁시연회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발자, 평화파괴의 주범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내외의 공정한 여론들은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력사는 전쟁도발자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를 똑똑히 말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고 숙고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합동군사연습 중단하라》

남조선 각계가 주장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7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90여개의 해외동포단체들로 구성된 《정전 70주년 〈한〉반도평화행동》은 서울시 룡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한〉미련합군사연습 〈프리덤 쉴드〉 중단하라》, 《전쟁날가 불안하다. 〈한〉미련합군사연습 당장 멈추라》 등의 구호들을 들고 진행한 기자회견과 발표한 성명문에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이 《방어연습을 생략하고 공격과 성과확대를 기본으로 하고있다.》, 《과거에 비해 군사훈련이 더욱 적대적으로 구성되였고 동원병력도 확장되였다.》, 《이번 훈련은 방어적훈련이 아닌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다.》고 까밝히였다.

한편 《민주로총》 경상남도본부와 경상남도 《진보련합》, 6.15공동선언실천 경상남도본부도 경상남도청앞에서 《〈한〉미련합군사훈련 중단,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반미, 반윤석열, 반전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호전광들이 제 주제도 모르고 망신스러운짓만 골라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것들이 《국방혁신 4.0》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 무슨 5대 중점 및 16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였다고 하는 《국방혁신 4.0》에는 이른바 《북핵 및 미싸일대응능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최우선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을 보충한 《킬 웹》이라는 작전개념의 도입과 《인공지능과학기술강군》육성을 비롯한 잡다한것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국방혁신 4.0》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멋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이야말로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력에 질겁한자들의 허망한 짓거리이다.

미국의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간신히 명을 부지하고있는 역적패당이 상전인 미국도 공포에 떠는 초대강국인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보려 하는것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막지하며 《국방혁신 4.0》이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상전이 쓰다 버린 무기들과 그것을 모방하여 만든 병쟁기들로 그 무슨 《대응능력》을 과시하려 하였다가 저들의 군사적허점과 파철과 다름없는 무기들의 실상이 드러나 세계의 면전에서 개망신을 당한 역적패당이다.

남조선군이라는것도 군복무기피와 각종 범죄, 극도의 기강해이로 하여 오합지졸의 무리, 합법적인 범죄집단, 허재비군대로 만인의 조소거리로 되고있다.

더우기 군통수권도 가지고있지 못한 미국의 용병에 불과한것들이 바로 남조선군이고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이러한것들이 그 무슨 《강군》육성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미꾸라지가 룡꿈을 꾸는것과 같은 해괴한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이 《국방혁신》에 대해 운운하며 주제넘게 놀아대는것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자들의 허세성 객기에 불과하다.

남조선호전광들이 제 처지가 어떠한지도, 상대가 누구인지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분별 못하고 군사적대결에 광분할수록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의 돌격대, 총알받이의 신세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비참한 자멸을 앞당길뿐이다.

역적패당은 《윤석열때문에 전쟁난다. 까불지 말라 윤재앙.》이라고 웨치는 각계층의 목소리를 이제라도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신 광 성

전쟁하수인들의 가소로운 《혁신》놀음

역적패당의 파멸은 시간문제이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에 대한 각계의 단죄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민주로총》, 《환경운동련합》을 비롯하여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역도가 경제장성을 떠들어댔지만 오히려 사회분렬과 갈등만을 초래하였다, 《재벌들의 배만 불리워주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로동권은 벼랑끝에 내몰았다.》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또한 윤석열역도가 《권력기관의 주요요직들에 검찰출신들을 들여앉히고 살벌한 공안탄압을 벌리며 〈검찰공화국〉을 만들어놓았다.》, 《사회가 〈검사들의 세상〉으로 변하였다.》, 《민주주의가 검사독재의 칼날에 훼손되고있다. 윤석열의 무지막지한 〈검사만능주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전례없이 후퇴하였다.》고 저주하고있다.

특히 《윤석열이 1년동안 〈헌법〉위반과 야당탄압, 민생무시로 〈한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놓았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 1년도 되기 전에 〈주권〉을 일본과 미국에 통채로 가져다 바쳤다.》고 단죄하고있다.

한편 《서울시국회의》, 《참여련대》,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등 각계층 단체들은 《윤석열이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며 조선반도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가고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땅에서 핵전쟁이 벌어질것이다.》, 《전쟁광인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배격하는 성토모임, 기자회견, 거리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서울과 경상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전 지역들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와 규탄대회들을 매일같이 벌리고있다. 집회와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이 굴욕적인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방안을 발표하여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일본에 간도 쓸개도 다 바쳤다.》, 《조선반도재침야욕을 버리지 않고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에 동조하여 〈주권〉을 통채로 가져다 바치였다.》, 《굴욕외교, 친일매국을 일삼은 윤석열은 력사오적보다 더한 매국노이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남조선의 야당들도 《파쇼독재자, 〈검찰만능주의자〉인 윤석열을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있고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윤석열과 그의 사당으로 전락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대중적인 반윤석열투쟁은 무지무능과 독선, 사대매국과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남조선을 헤여나올수 없는 파국과 재난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민심의 원한과 저주, 분노의 폭발이다.

집권 1년도 되기 전에 선행독재자들이 집권기간 저지른 죄악을 릉가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 민심의 저주와 배격을 받고있는 윤석열역도와 그 패당이 머지않아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리 기 영

말말말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

▷ **《출구없는 대결을 멈춰야 한다.》**

외세와 야합하여 대규모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며 《평화를 만드는 녀성회》 상임대표가 11일에 한 성토.

▷ **《국민은 기가 막히는데 윤석열은 귀가 막혔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민심에 역행하여 《제3자변제안》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배상안을 내놓은 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를 규탄하여 11일 남조선의 한 야당인물이 한 말.

민족을 팔아 일본행각의 길을 연 매국노

《리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고 리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것이 매국의 력사인데 이 계보를 완벽하게 계승한것이 윤석열검찰파시스트일당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3월이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일본행각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이 성토한것이다.

너무도 응당한 주장이고 평가이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는 그 무슨 《3.1절기념사》라는데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침략자에서 협력의 동반자로 변했다.》고 떠벌이였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일본전범기업대신 저들이 한다는 《제3자변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이미전에 섬나라것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유사시 〈자위대〉가 조선반도에 들어올수도 있다.》고 줴친것도 모자라 일본 《자위대》무력을 조선동해상에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재침의 칼을 벼리는 천년숙적의 길잡이 노릇까지 한 윤석열역도이다.

《지지률이 10%까지 떨어지더라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일본것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반민족적죄악을 거리낌없이 저지른 역도는 이번에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할수 없다는 섬나라것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천년숙적에게 팔아넘긴 대가로 일본행각의 길에 올랐다.

이런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어떤짓을 하겠는지는 불보듯 명백하다.

실제로 섬나라에 발을 내딛기 바쁘게 역도는 일본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제3자변제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리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행사로 이어지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또한 일본것들의 군사대국화책동에 대해서도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리해한다.》고 하면서 비호해나섰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와 미국,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한 반공화국압살공조를 왜나라것들과 모의하였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뒤전으로 둔채 조공보따리를 들고 일본을 찾아갔다.》, 《〈경술국치〉가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으며 당한 치욕이라면 〈계묘국치〉는 윤석열을 비롯한 〈계묘오적〉이 〈나라의 독립과 자주정신〉을 팔아먹은 최대의 굴욕이다. 윤석열의 친일죄악은 교과서에 남길 〈력사의 치욕〉이다.》, 《윤석열에 의해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이 현실화되고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이 다시 조선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것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조선총독〉이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이번 일본행각을 섬나라것들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포기한 《굴욕행각》, 《굴종행각》, 남조선을 일본에 섬겨바치는 《조공행각》, 《매국행각》,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정세를 더욱 불안에 빠뜨리는 《안보위기행각》이라고 비난하고있다.

매국노는 반드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남조선 각계층이 《국민과 싸우려는자의 종말을 우리는 안다. 빼앗긴 들에는 반드시 항쟁의 봄이 오기마련이다.》고 웨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본사기자 김 정 혁

독재권력의 거수기가 된 부패보수당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국민의힘》것들은 이번 새 지도부구성을 통해 내외에 저들이 《윤석열역도의 사당》으로 완전히 전락되였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였다는 대표와 최고위원이라는자들이 모두 윤석열역도의 철저한 하수인들이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에 진행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당지도부선거이고 특히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 내보낼 후보추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것으로 하여 역도의 집권중반기 통치안정과도 직결되여있었다.

하기에 윤석열역도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자기의 측근들로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지도부를 구성해 당을 장악해보려고 지난해말부터 《대통령》관저에 친윤석열파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밀담을 벌리는 등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선거에 로골적으로 개입해나섰다.

한편 친윤석열파들은 저들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여야 윤석열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수 있다고 떠들면서 서로 물고뜯으며 역도에 대한 《충성경쟁》을 벌리였는가 하면 비윤석열파들을 《철새정치인》, 《국정운영의 방해군》, 《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로골적으로 몰아대고 배척하였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는 윤석열역도와 그 측근들의 이러한 정치적음모와 전횡 그리고 당권장악을 위한 보수패당내부의 개싸움질의 산물이고 결과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새 상층부가 구성된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이 윤석열사당으로 재창당되였다.》, 《윤석열이 권모술수로 여당지도부를 장악하였다.》, 《룡산 〈대통령실〉의 친정체제로 전락된 여당》이라고 비평하고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보수당내부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번 새 지도부선출에서 밀려난 비윤석열파들은 윤석열역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집권후반기 통치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기 《국회》의원선거후보추천파정에 비윤석열파들을 내쫓고 검찰출신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일수 있다고 보면서 경계하고있다. 그리고 당권을 장악한 친윤석열파들은 윤석열역도의 《국정운영》에 방해로 되는자들은 다음기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윤석열파들을 로골적으로 위협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지난 시기 보수당내에서 있었던 제2의 《공천학살》이 재현될수 있다, 친윤석열파의 독주로 밀려난 비윤석열파들이 당을 뛰쳐나와 딴살림을 펼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새로 당지도부를 구성한 《국민의힘》것들이 《민생》을 위해 모든것을 집중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과 사리사욕에 환장한 정치시정배들인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

다리 부러진 노루 한끝에 모인다고 민생파국을 초래한 리명박, 박근혜잔당들, 인간쓰레기들, 민심을 등진자들의 소굴인 《국민의힘》이 도탄에 빠진 민생을 위한 정치를 펴리라고 기대하는것은 썩은 탉알에서 병아리가 까나오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허망한것이다.

민심은 이미 윤석열역도와 역도의 《하청기관》인 《국민의힘》것들에게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였다.

윤석열역도와 함께 《국민의힘》이 민심의 격랑에 부딪쳐 침몰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전 명 진

친미굴종정책이 초래한 필연적결과

제정신이 없이 남의 장단에 놀아나다가는 머저리가 되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추종하다 남조선경제를 파국의 진창속에 더욱더 깊숙이 처박아놓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두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역적패당은 미국주도의 《인디아태평양경제틀거리》, 《칩4동맹》 등에 가입하고 세계패권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강권정책들에 무조건 추종하고있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대미추종정책은 수출과 수입물자의 대부분을 의존하고있고 년간 무역거래액도 작지 않은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것은 남조선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변국들은 남조선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쌍방관계에 악영향이 미칠것이라고 련일 압박하면서 추가적인 경제보복조치도 시사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내부에서는 현 경제위기가 미국의 《신랭전돌격대》, 《종미나팔수》로 자처해나선 윤석열이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윤석열의 친미굴종정책으로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되였다는 개탄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이다.

결국 역적패당은 경제협력대상들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보복을 초래함으로써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얼간이짓을 하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에 그토록 충성하면서 빵부스레기라도 얻어보려 하였지만 미국으로부터 받은것은 무엇이였던가.

지금 미국은 자국내에서의 제조업기반약화와 만성적인 실업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감축법》과 《반도체산업육성법》, 《바이 아메리칸》(미국제품구매)과 같은 법들을 새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는데로 나가고있다.

그로부터 남조선의 반도체 기업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자동차기업 등은 미국의 자동차기업들에 밀리워 간신히 유지해오던 시장보유마저 지탱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거기에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내리먹이고있어 남조선의 강철, 건재 등 생산업체들도 막다른 위기에 몰리우고있다고 한다.

역적패당이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요란히 떠들며 남조선경제를 통채로 상전에게 내맡겼지만 되돌아온것은 미국의 랭대와 버림이고 《하루아침에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되였다.》, 《미국발 경제폭풍이 몰려온다.》는 민심의 한탄과 비감뿐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대외경제환경악화는 역적패당의 친미굴종적정책, 식민지노예정책이 가져온 필연적결과이며 제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수출주도형경제의 피할수 없는 숙명인것이다.

자존을 잃으면 의존밖에 남는것이 없으며 남에게 기대여 사는자는 불피코 노예적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

사대매국, 친미굴종으로 경제를 파국에 몰아넣고 민생을 더욱 망쳐놓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심의 타도대상이 된것은 응당하다.

본사기자 안 권 일

ㄱ-1584ㄷ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